

한 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한 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특성화 추진 배경
 - 2.1.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
 - 2.2.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의 필요성
3.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
 - 3.1. 배경
 - 3.2. 다문화관련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4. 결론

국문초록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 인재 양성 전략의 성공 여부는 교육적인 비전 공유 및 적극적인 교육 행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을 지역 기관과 교육 연계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제친화형 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90802)

문화 인재로서의 양성 교육 방법의 성패 여부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결혼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비전 공유와 지역 대학기관의 교육서비스가 실시간적으로 지원되는지, 그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주제에 한 아세안 교류 증가, 결혼이민자, 양성과정,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1. 서론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한 아세안의 교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회원 국가들(10개국)¹⁾과의 외교·경제적 협력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2022년까지 아세안 회원 국가 대상 전체 정규 초·중등학교 및 대학 내에 한국어과정을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의 아세안에 대한 적극적 교류의 기본 취지는 외교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한·아세안의 협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협력은 인적 이동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Martiniello(2002)는 이민으로 형성된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됨으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다원주의적 접근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특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민 유형의 특성상 아시아 출신 국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현재 이민자 중 약 218만 명 중에서 24%가 아세안 국가 출신이다(법무부 2021).

1)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2022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가인 라오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10개국이 회원국에 속해 있다.

한편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측면, 즉 통신 인프라 관련 또한 발전하고 있다. 각 국가별 인재 유치 경쟁에서도 이민자들을 유입하는 국가의 관점에서는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한·아세안 지역의 교류 증가에 따른 연구는 주로 FTA, 기금 협력 등 경제 교류 측면(김동엽 2022; 신유진 외 2022; 이요한 2021; 박민정 2020)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 교류 측면에서 문화와 언어를 다양하게 공유하는 인재 양성 관련은 경제적 측면과 대비하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매개체로 하는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 콘텐츠는 국가를 초월하는 양상이 존재하므로, 국제적인 인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지역의 교류 증가에 따른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에서 결혼이민자²⁾들을 매개체로 하여 다루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한국의 전체 이민자 중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현황에 따른 특성화 추진 배경과 둘째, 배경 및 주요 추진 현황을 통해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한 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특성화 추진 배경

2.1.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에 대한 수요와 공급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문서(ASEAN-ROK Joint

2)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 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신 체류자격), F-6-2(자녀 양육), F-6-3(혼인 단절) 체류 자격 소지자로 귀화 등으로 혼인귀화자는 체류외국인 통계에서 제외한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주요 용어 설명,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정의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결혼이민자를 정의하고 있다.

Vision State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에는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인적 이동과 문화교류,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발표한 정책 내용에서는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그리고 사람(People)의 3P, 3대 영역의 16개 세부과제를 제출하였다. 기존의 한국과 아세안 교류는 주로 무역 및 투자 중심 경제 관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남방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People-centered)의 한·아세안 관계'로 질적 전환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영희·최경희 2020).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문서(ASEAN-ROK Joint Vision State for Peace, Prosperity and Partnership)에는 인적 이동과 문화교류,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용어 개념에서 친화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산업, 환경, 고령 등에 기반한 연구에서 친화형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현장 친화형(장승권 외 2013; 이상원 2021), 도시발전방안, 가로등 디자인 등의 시민 친화형(김미성 외 2022; 정용진 외 2022), 운동기구개발, 공원만족도 등 고령 및 노인 친화형(조현주 외 2017; 인샤오옌 외 2022) 관련 분야가 연구되고 있다. Martiniello(2002)는 장기화되고 있는 이민자들은 출신 국가의 문화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전체 체류외국인³⁾보다 국민됨을 전제로 정주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 모국의 언어를 병행하여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아세안 10개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를 병행할 수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쌍방향 언어에 대한 친화력이 자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배경이 국제적이므로 국제친화형이라고 정의한다.⁴⁾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인

3) 체류외국인은 관광 등 목적을 두고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과 91일 이상 장기 거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로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외국인(* 체류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을 말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통계연보 인용). 법무부의 체류외국인의 통계에서는 국적취득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4) 본 연구의 용어 정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자원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역할에서 결혼이민자들이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역량을 갖추도록 특성화 방안이 개발되어 운영된다면 국가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교육이 필요하며, 적합한 교육을 거친 인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이형래 2006).

법무부 통계월보 2022년 8월 기준 결혼이민자들은 170,307명이며, 혼인귀화자는 151,313명으로 조사되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년 8월 통계월보). 결혼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언어, 문화적 접근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사회의 공존을 위한 결혼이민자들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은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14.3%, 30대 36.4%, 40대 24.0%, 50대 16.0%, 60세 이상은 9.2%로 젊은 연령대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체류 기간별로 살펴보면 15년 이상이 39.9%, 10~15년 미만 28.9%, 5~10년 미만 19.2%, 5년 미만 12.1%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대비 15년 미만 거주 비율은 감소하고, 15년 이상 거주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이러한 결혼이민자들의 젊은 연령층과 장기거주화에 따른 이들의 언어, 문화 등 특징을 반영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1>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가 체류외국인의 총계로 결혼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로 나타내고 있다. 브루나이의 경우에는 체류외국인의 통계는 있으나 결혼이민자들은 아직 없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국가의 총계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번역사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단계인 5급 이상으로 결혼이민자들 중 다문화 인재 범위를 두고자 한다.

〈표 1〉 아세안 국가 체류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분포 비교

(단위: 명)

국적	총계	남성 (결혼이민자 제외)	여성 (결혼이민자 제외)	결혼 이민자 (소계)	남성	여성
베트남	220,444	86,769	92,159	41,516	3,560	37,956
필리핀	62,117	19,901	18,134	12,041	528	11,513
타이	44,463	19,908	11,439	6,558	122	6,436
캄보디아	43,420	27,162	13,101	4,565	546	4,019
인도네시아	47,366	27,243	13,701	1,073	111	962
라오스	2,196	380	720	548	1	547
말레이시아	4,082	1,816	1,626	320	68	252
미얀마	24,837	22,632	1,651	277	59	218
싱가포르	986	261	393	166	58	108
브루나이	55	20	35	0	0	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년 8월 통계월보에서 인용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앞의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아세안 국가들은 결혼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아세안 이민자들도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유형의 아세안 이민자들,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E-9) 관련산업체의 통번역 관련 업무도 출신 국가 언어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법무부, 경찰청 외사과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 통역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서 주로 다문화 언어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2).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단지 언어 교육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수업하기 등의 기능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의 다양화와 정주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인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운신의 폭이 좁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이라는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한·아세안 교

류가 상호소통을 근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상호소통의 필요성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이해는 다소 미흡하며, 게다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외국인 등의 부정적인 인식까지 만연해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⁵⁾ 이러한 막연한 편견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하나의 접근 방안은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문화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내국인에게는 아세안 국가의 문화 등을 전달하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문화 등을 전달하는 역할의 가능성이다. 나아가 한·아세안 정치,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다문화 인재로서의 연계 가능성 이다.

두 번째, 한국 내에서도 이민자들의 분포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부산에서 진행되었던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즌 동안 부산을 다녀간 사람이 2만 6천여 명에 달했으며, 이는 놀라운 성과로 기록되었다(이재현 2019: 172). 특히 부산 지역은 아세안 국가에 속하는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출신 국가 결혼이민자들의 통번역 등 활동이 풍부한 지역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법무부 2021). 국제적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김정주·김경연(2017)은 일본의 국제개발 협력 중 교육 분야에서 특히 ASEAN에 대한 교육개발 협력 방안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하였다. 한태인(2011)은 대학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로 아세안사이버대학교 운영과 교육 자원, 프로그램 개발 공유와 ICT 수준 차이의 최소화,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한 고등교육 질적 제고 및 대학의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2.03.21):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이주인권 정책' (<https://www.humanrights.go.kr>).

세 번째, 상호협력적 인적 자원 기반의 공유와 확산이다. 한국의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은 단지 일시적이며, 무형의 교육 구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혼이민자들이 향후 소통, 무역, 문화교류, 의료 등 국제관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2.2.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의 필요성

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언어, 문화, 무역 방면의 융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기준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가 출신 이민자는 약 60만 명 정도에 달한다. 체류 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기체류가 61%이며, 단기체류는 38%, 영주를 비롯한 기타 자격 체류가 1%로 나타나고 있다. 체류 유형별 기준에서는 노동이주 55%, 결혼이민자가 16%, 유학생은 14%, 기타가 15%를 차지하였다(2021, ASEAN Korean Journal).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이 아세안을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의 수준 역시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아세안으로 향하는 한국인 수는 한국으로 오는 아세안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법무부 2021).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 경쟁력 시장이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초국가적 인재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된 이주산업은 갈수록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 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전 세계가 시간적 및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한국과의 교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활용을 통한 협력적 관계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조선왕조실록). 한·아세안 관련 연구로는 주로 교육개발 협력에 관한 것으로 김갑성(2012)은 한

국의 역할 정립을 위해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주도국으로서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국제교육개발 관련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을 연구하였다. 채재은(2015)의 연구에서는 교육개발협력에 있어서 베트남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충족 방안을 교육적 접근으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의 배우자로 국민됨을 전제로 한국사회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1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결혼이민자들이 전체 대비 39.9%로 정착 주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녀들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중 만 9세부터 24세까지는 44.9%로 2018년 실태조사 대비 8.3% 상승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주류사회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리적 및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 더욱 밀접한 관계로 연계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아세안에 대한 인적 자원 개발 관련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3.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

3.1. 배경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한국의 체류외국인은 급감하였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아세안 공동체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19 통합 출구전략인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Implementation)'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아세안의 상황은 한국이 아세안 공동체의 목표 및 가치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한·아세안 공동체의 변화는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라미령 외 2022).

연도별 인구대비를 살펴보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체류외국인조사에서, 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은 2017년 4.21%, 2019년 4.87%의 지속적인 증가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3.79%로 감소하였다. 반면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제결혼 흐름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른 이민자와 같이 둔화 상태를 보이기는 해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이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한 의무 교육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⁶⁾ 참여자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혼이민자들의 수도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의 <표 2>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단위: 명)

총계	'10~ '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1~8월
104,481	61,894	7,334	7,784	8,821	9,667	4,226	2,175	2,580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년 8월 통계월보에서 인용하여 본 연구자 재구성

한편 한국의 사회통합에서 이민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4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2022년 기준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과정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4단계(기초단계포함 416시간), 그리고 한국사회이해 5단계는 기본반(70시간), 심화반(3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후 교육과정으로 2022년 7월부터 F2(거주), F5(영

6)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7개국 출신 이민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통계연보 인용).

주), 국적취득예정자, 귀화신청자 및 이공계 연구원,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 및 귀화자의 권리와 의무, 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시민교육은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지역 정보 등 기초적인 교육만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친화적인 통번역과정 등 전문가 과정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은 2009년 전국 ABT(Active Brain Tower) 대학을 중심으로 20개소에서 시작하였으며, 2022년 기준 현재 366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수는 2022년 8월까지 총 373,034명으로 나타난다(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이러한 이민자 참여자 수는 2009년 1,331명에서 2019년 56,535명까지 한국의 이민자 점수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연보 기준 2021년 전체 이민자 참여자 43,552명 중 결혼이민자는 18,096명으로 4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은 6,442명으로 14.8%, 기타 체류자격 소지 재한외국인 등은 19,014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년 통계연보 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다문화 인재 관련 연구에서 핵심 가치와 함의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수용함으로써 다문화 관련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설계에 대한 기본 토대로 삼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배양 방안에서 이러한 목적들을 통해 본 연구는 한·아세안 교류 협력 차원으로 결혼이민자들이 가진 특성을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은 향후 결혼이민자들 자녀에게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아세안 간 한류로 인한 이커머스 등 관련 콘텐츠 산업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실시간 아세안 국가의 물품을 소비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상품 또한 아세안 국가로의 시간적 및 지리적 제약사항을 초월하고 있다. 글로벌 인적 교류의 증가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은 더욱 요구된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의 통번역 능력은 몇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

다. 2020년부터 SNS 등 소셜미디어에 15개국 언어로 번역된 코로나 19 팬데믹 예방 수칙에 관한 포스터가 공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에 베트남, 필리핀어(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방글라데시어·우즈베키스탄어 국가 언어 13개 버전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13개 버전의 포스터는 결혼이민자들의 통번역으로 이루어졌다.

통번역 직업 관점에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 주류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창출된 직업이다(김경희 외 2014).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은 2009년 정부차원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생성되어진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쌍방향 문화를 모두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신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구성원이다. 심나경(2017)은 결혼이민자 특화 직종 분야로 통번역사, 다문화상담원,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등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의 특징을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가 한국사회에 홍보될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립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문화연구소 2015). 반면 이러한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⁷⁾에서 주장한 것처럼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출신국의 관점에서는 국제 교류의 주역으로의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종환 외 2012: 90-91).

장애리(2011) 연구에서는 통번역사 본인이 이질적인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야 효과적인 문화소개를 통하여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고 하였다. 임형재(2016)의 연구에서

7)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미국의 학계에서 범죄심리를 연구하는 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의 연구에서 깨진 유리창 한 개를 그냥 방치해 두면 방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어떤 범죄의 확산이 시작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 이론은 아주 작은 의미의 무질서를 방치하면 이후에 그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https://namu.wiki>).

는 커뮤니티 통번역사는 문화 소통 및 문화 중개에 덧붙여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도 요구되는 언어(Language), 문화(Culture), 무역(Trade) LCT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융합전공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 관련 조사에서 출신 국적별 상용직 비율은 유럽을 비롯한 서구 국가 출신이 66.6%로 높게 차지하였다. 반면 임시직 비율은 필리핀 23.9%, 캄보디아(24.8%) 등 아세안 국가 출신 비율이 임시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이 조사에서 나타난 바, 결혼이민자들이 활동 분야가 여전히 임시직과 관련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지원 부처 및 지자체, 대학, NGO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제적 역량 강화 및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특성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3.2. 다문화관련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부산은 아세안의 대표적인 국가인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⁸⁾ 그리고 부산 지역은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얻은 인식적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지역의 대학 기관 중 한·아세안 언어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부산의 B대학은 학부 및 통번역대학원에서 전공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B대학은 다문화연구소 및 관련 학회를 설립하여 다문화 인재 양성 관련 등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대학의 통번역 교육과정 외에 통번역서비스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담당하

8) 부산 지역 결혼이민자 총계는 13,255명으로 베트남(4,485명), 중국(2,622명), 중국 한국계(2,250명), 필리핀(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부산광역시, 2022).

고 있는 전담인력의 출신 국가 언어 제시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전체 인력의 8.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몽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네팔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순이며, 총 10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5개국이 전체 인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성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 전담인력은 총 312명이 배치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2). 통번역 담당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⁹⁾ 여성가족부의 통번역서비스는 고졸 이상의 학력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C) 4급 자격증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연 2회 양성교육 32시간과 보수교육 18시간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통번역 등을 필수로 하는 전담직원들의 전문화(Specialization), 소프트웨어화(Softwarization) 등의 전문성을 함양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기관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전문가 과정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통번역 과정(모국어 및 한국어 논리적 글쓰기와 말하기 등), 출신국가의 대외 주요 정책 과정, 한국의 대외 주요 정책 과정 등을 이수하게 하는 특성화 방안이다. 이러한 특성화 방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인 대학 등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통번역과 관련한 보수교육 등의 시·공간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거점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원, 관련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이 학력 신장 및 대학에서의 관련 전공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접근 시스템의 보강이다. 학력신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한·아세안 출신 국가 결혼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장학제도 및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온·오프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선발된 통번역 전담인력을 전문통번역지원사, 통번역지원사로 임용(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라인 수업 등을 대학 차원에서 특성화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적극적으로 다문화사회 발전과 연계되는 특성화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결론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 인재 양성 전략의 성공 여부는 교육적인 비전 공유 및 적극적인 교육 행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교류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을 지역 기관과 교육 연계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화 방안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특성상 의미있는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의 결혼이민자들은 국제적 공존과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가를 초월하는 다양한 연구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도 제시된다. 이에 따른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 특성화 방안은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민자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로서의 양성 교육 방법의 성패 여부는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결혼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비전 공유와 지역 대학기관의 교육서비스가 실시간적으로 지원되는지, 그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친화형 다문화 인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무형의 교육 구축만을 의미하지 않은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2).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2,0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이주인권 정책’(https://www.humanrights.go.kr).
- 김갑성(2012).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국제교육개발협력 방안: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0(4),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69쪽-292쪽.
- 김경희·허영숙(2014).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ethnic) 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3권 2호, 75쪽-101쪽.
- 김동엽(2022). 한국의 새로운 對 아세안(ASEAN) 협력 전략: 중견국 외교를 통한 소 다자주의적 접근, 〈아시아연구〉, 한국아시아학회, 25권 1호, 251쪽-270쪽.
- 김미성 외(2022). 지속가능한 MICE 도시발전방안 모색 -시민친화형 수원컨벤션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92권, 644쪽-654쪽.
- 김정주·김경연(2017). “ASEAN 교육개발협력 전략의 국가 비교: 호주와 일본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8(3),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95쪽-122쪽.
- 나승희·박준환(2022). 캡스톤디자인을 활용한 노인친화형 운동기구개발 : 특허출원,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발육발달학회지, 30권 1호, 91쪽-98쪽.
- 다문화연구소(2015). 결혼이민자 자립성공스토리 : 그녀들의 이야기, 〈부산외국어대학교〉.
- 라미령 외(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정책연구원, 71-81쪽.
- 박민정(2020). 한-아세안협력기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다자성 양자원조로서의 특징과 한계,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학회, 12권 4호.
- 법무부(2021).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외국인 통계연보.
- 법무부(2022).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외국인 통계월보 8월.
- 부산광역시(2022). 2022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https://www.socinet.go.kr(검색일: 2022년 3월 15일)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 신남방정책추진 전략, http://www.nsp.go.kr/(검색일: 2022년 5월 10일).
- 신유진 외(2022). 미 참여 학생들의 요구 분석을 통한 한국 학생들의 아세안 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35권 3호, 81쪽-110쪽.
- 심나경(2017).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직업정체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 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가족사업안내 제2권, 3쪽-409쪽.
- 이요한(2022). 한국의 아세안 소지역(sub-region) 협력 거버넌스: 메콩 유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32권 2호, 31쪽-58쪽.
- 이종환 외(2012).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이용한 학교 환경 개선 실험,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환경교육학회, 12권, 85쪽-95쪽.
- 이주민통번역센터, <http://www.weekly.khan.co.kr>(검색일: 2022년 4월 25일).
- 이지은(2015). 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 〈통역과 번역〉, 17권 1호, 89쪽-124쪽.
- 이재현(2019). 아세안 2019: 어수선한 주변 환경, 꾸준한 통합 추진, 〈동남아시아연구〉, 30권 1호, 157쪽-182쪽.
- 이형래(2008). 국가 수준 “국어/언어 능력 검사”의 비판적 검토: 직업문식성 평가로서의 9급 공무원 임용 국어시험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13권, 167쪽-210쪽.
- 인샤오옌 외(2022). 퍼지 종합 평가를 활용한 노인 친화형 공원 만족도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50권 2호, 89쪽-101쪽.
- 임형재(2016).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 〈중한언어문화연구〉, 10권, 125쪽-155쪽.
- 장애리(2014). 다문화 사회와 지역사회 통역-지역사회 통역사로서의 결혼이민여성: 잠재력과 한계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5권 1호, 21쪽-238쪽.
- 정용진 외(2022). 주민친화형 소형풍력발전 가로등 디자인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논문집, 7권, 71쪽-72쪽.
- 조선왕조실록(1392~1863). 조선왕조실록 태조에서 철종까지 제 25대 왕 기록물. <https://sillok.history.go.kr>
- 조영희·최경희(2020). 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 구축 위해 문화 및 인적 교류 정책의 ‘질’고려해야. 〈월간 공공정책〉, 171호, 65쪽-67쪽.
- 조현주·이순주(2019). 보행적 측면에서 노인친화형 공원의 유치거리 도출 및 녹지서비스 지역 평가-보행자 측면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한국조경학회지, 47권 1호, 1쪽-9쪽.
- 채재은(2015). 베트남 교육과 공적개발원조, 〈동남아시아연구〉, 25권 4호, 한국동남아학회, 77쪽-124쪽.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2018년 통번역서비스 사업 결과보고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보고서〉.
- 한태인(2011). 아세안사이버대학교 공동활용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운영 방안 연구, 〈정책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쪽-257쪽.
- ASEAN Korean Journal(2021). <https://asean.org/>(2022년 9월 14일).

Chew · Amy(2019). “Indonesia’s Joko Widodo Wins Second Term as President, as Elections Commission Releases Final Tally Early Amid Fears of Unrest.” South China Morning Post 21 May.
Martiniello, Marco(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한울.

필자 소개

성 명 황미혜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겸임교수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mhh1361@bufs.ac.kr

Abstract

A Study on the Specialized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for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of Korea-ASEAN on Exchange Increase

Hwang, mi-hy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Korean multiculture society is a key issue for the creation competent and talented human resources for the production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how to characterize and the specialized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for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of Korea-ASEAN on exchange increase with global competitiveness. The success of multi-disciplinary education will be maximized when cooperation with the responsible ministry, the active will of the ministry, the exchange increase vision of the university, and real-time and active administration are suppor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demand and supply of the human resources in the multiculture society, we found out that the multiculture society requires Specialized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for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of Korea-ASEAN on exchange increase who has the creativity, practical appliction ability, and the international competency.

[Key words] Korea-ASEAN Exchange Increase, Marriage immigrant womenpower, Training System, Global-friendly Multicultural Tallent

투고일 2022. 10. 31 / 심사일 2022. 11. 2 / 심사완료일 2022. 11. 16

